시월 이야기

RaonAtti 10th in Pangasinan

2013.10.01-10.31

김보경, 김연, 박진경, 선다희, 우민아

목차

1. 10월 활동 요약

2. 이달의 인물

3. 활동 소개

4. End Poverty Campaign

5. 아띠 Project

6. 홈스테이

7. 사진방

10월에 인사드리는 팡가시난 라온아띠!

Aurora

: 팡가시난 마을에서 산지 벌써 2달! 활동하다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하는 친구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또 행복하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싶어~~!!

Jun

: 필리핀 생활이 벌써 2달이 지났다니....ㅠ 또 다시 군대를 미루며 라온아띠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피부색은 완전한 현지인이 됩니다. ㅋㅋ

Daīney

: 폭풍 전야와도 같았던 10월 한 달. 필리피노와 코리안이 아닌 Pangasīnan YMCA와 라온아띠로서 소통이 필요할 때.

Alex

10월! 한국에서는 수능이 다가온다는데 이 곳엔 수능한 파는커녕 가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햇살만 따갑다. 11월과 12일이 망고 수확 제 2차 시기라는데 기대가 크다. ㅎㅎ

MīnAh

: 10월의 격변기를 지나, 잘 살고 있다. 이젠 밥도 다 맛있고 함께 사는 것도 Y와 일하는 것도 사랑스럽다. 타인의 장점이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많은 걸 배우고 있다.

October 2013

10월 활동 내용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 Pozzorubio, Aldana National High School 방문 ■ Manaoag Catholic church	2 ■ Immigration 방문, 비자연장 ■ 라온아띠 Meeting ■ YMCA 전 President 조문 - San Carlos City	3 ■ UL - Blood donation 행사참여 ■ YMCA 전 이사 조문 - Dagupan City	4 ■ DCNHS Intramural ■ Brgy Gayamen Y 자원 봉사자들의 마을 방문	5 ■ End Poverty Campaign – 1st SKY Meeting
6 ■ 개인시간 ■ NEPO Mall 생필품 구입 ■ Reflection 작성	7 ■ Pugaro ■ Bible sharing ■ Atti Plan Meeting with Jimmy	8 ■ 보고서 작성 ■ End Poverty Campaign 준비	9 ■ Kuya Randy 생일 초대 – Bingmaley ■ End Poverty Campaign - 2nd SKY Meeting	10 ■ Atti Plan Meeting with Staffs ■ End Poverty Campaign Group별 준비	11 ■ 보고서 작성 ■ End Poverty Campaign 준비	12 ■ 개인시간 ■ YMCA 식구들 Atti House 방문 ■ End Poverty Campaign 끝장토론
13 ■ 개인시간 ■ End Poverty Campaign Group별 준비	14 ■ Bible sharing ■ Emmet Farewell Party- Music ware house	15 ■ Pugaro ■ Pugaro Brgy. Captain Meeting ■ Reflection with Staffs	16 ■ Dumpsite ■ End Poverty Campaign 준비 ■ 보고서 작성	17 ■ 아띠들 몸 안 좋아 집에서 휴식 ■ 보고서 작성 ■ End Poverty Campaign 준비	18 ■ Pozzorybio,UL 방문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 End Poverty Campaign in UL	19 ■ Academic Olympic ■ End Poverty Campaign Open Booth
20 ■ 개인시간 ■ Jimmy 가족, Y 식구들과 저녁식사 – Robinson Mall	21 ■ Dumpsite ■ Dumpsite Project Meeting with Marvin	22 ■ Pugaro ■ Tagalog class	23 ■ Board 이사 Evangelian의 점심 초대 ■ Dumpsite ■ Pangasinan Class	24 ■ San Carlos City, Grelew School – United Nations Day Celeb. ■ Pugaro 태권도 첫 수업 ■ Tagalog class	25 ■ Dumpsite ■ 라온아띠 Dumpsite Project Planning	26 ■ End Poverty Campaign – Livelihood Team Meeting ■ Korean class ■ 킴벌리 문제 의논
27 ■ Dumpsite 방문	28 ■ Dumpsite – Atti Klase 1st Class ■ 라온아띠 Dumpsite Project Planning with Rolly, Arneth	29 ■ 10월 보고서 편집회희 ■ Dumpsite Project Plan Feedback with Marvin	30 ■ Dumpsite – Atti Klase 2nd Class ■ Dumpsite Project Plan Meeting with Scholars	31 ■ Dumpsite 방문 및 Video 촬영 ■ 홈스테이 시작		

우리 식구를 소개합니다.

Emmet:
Allen 친구, 3주동안 라온아띠 제6의 멤버, 영국출신 아일랜드인, 정신세계 독특함, 법 전공, 밥 대신 쪼꼬,

Francis:
아띠누나들의 사랑을 뜸뿍, '누나~~', 최연소 장학생 회장, 똑똑 꼼꼼 상냥

Danielle:
Leo 여친, 한국어 공부 열정, 엉뚱한 매력, 재해관리청 공무원, 소녀소녀.

Kuya Ruts:
Pang Y에서 30년동안 근무하신, 소년같은 머슬맨.

Kuya Bobby:
Y호텔 매니져, 아직 미혼, 남자들에게는 거친 형님, 여자들에게는 수다쟁이 삼촌

Kuya Randy:
수줍은 미남, 이정진 닮았습니다. 랜디가 말하면 농담도 진실

Kuya Rodel:
비밀 광대, 자상한 아빠, 푸근한 미소

Clark:
MinAh를 좋아함, Dainey에게 찍힘, 해양기사 연수생, Y호텔 아르바이트.

A. 지역 학교 방문

10/1 - Benigno V. Aldana National High School, Pozzorubio

Green Agent WS에서 만난 선생님과 학생들의 초대로 <National Science Club Month Celebration>에 참석했다. 과학을 큰 주제로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라온아띠가 방문한 날에는 반 별 경쟁 Robotic Dance 대회, 교내 멋진 학생 선발대회인 Search for Lakandula at Lakambini 가 있었다. 라온아띠를 초대하신 Jovita Neri 선생님의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실'도 둘러보았다. 무대에 갑작스레 초대되어 함께 간 Y식구 모두 함께 YMCA Song-It's Time에 맞추어 춤도 추었다. 교내 멋진 학생 선발대회는 한국에서 볼 수 없던 특별한 행사였는데 교내 우승자는 지역 대회, 지역 대회 우승자는 전국 대회로 올라간다고 한다. 참가 학생들이 공연, 스피치, 의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매력을 뽐냈다. Green Agent WS에서 만났던 학생들,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 반가웠고, 그들의 공간과 학교 생활을 둘러볼 수 있었다. Aldana National High School의 숲과 어우러진 캠퍼스도 아름다웠다.

Green Agent WS 참가자였던 Princess와 동생 Rainnier / 초대해주신 Jean Molina 선생님과

10/3 - University of Luzon, Dagupan City

3. 활동소개

<17th Pledge 25 Mass Blood Donation>

UL에서 필리핀 적십자와 함께 1년에 2회 시행하는 대규모 헌혈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는 UL학생들 중 NSTP(National Service Training Program)에 속한 학생들과 간호학과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된다. UL교수이자 Y 이사인 Kuya Nash가 라온아띠를 초청했고, Y Scholar 중 UL 학생인 Jeramae가 자신을 포함 5명의 헌혈자를 구하는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어 라온아띠가 헌혈에 응해 참여했다. 이 날 5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혈했고, Dainey와 Alex가 동참했다.

필리핀 RaonAtti 여자 단원 3명이 모두 AB형인데, 필리핀은 AB형 혈액형이 극소수인지라 헌혈 행사에서 Dainey의 헌혈을 특별히 더 반겼다는 것! 다른 두 단원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헌혈을 하지 못했는데 AB형 피가 귀하다니 더욱 아쉬워했다.

10/4 - Dagupan City National High School

3. 활동소개

〈Intramurals 2013〉 DCNHS의 교내 행사에 참여했다. Opening Ceremony, 멋진 학생 선발대회, 코스튬플레이 대회 등을 보았고 오후의 체육 경기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DCNHS 첫 방문 때 만났던 많은 학생들, Y 식구들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Y 바로 앞에 있는 DCNHS이다보니 오며가며 만난 많은 학생들이 아띠를 더욱 반겨주었다.

10/18 - University of Luzon, Pozzorubio

3. 활동소개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UL Pozzorubio 캠퍼스에서 Supreme Student Council (학생회) 학생과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and Values Orientation Seminar :Enduring Link To Excellence and Leadership' 에 참석했다. 라온아띠 또한 4그룹에 각각 들어가 UL친구들과 함께 리더쉽 활동에 참여하며 리더쉽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인상깊었던 것은 어떤 활동이더라도 그 활동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즐겁게 다 같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아띠들 또한 재밌게 참여하였다.

10/24 - Guelew Integrated School, San Carlos City

<United Nations Day Celebration>

Academic Olympic에서 만났던 Lary 선생님의 초대로 United Nations Day Celebration에 참가했다. 10월 24일 UN이 지정한 United Nations Day, Guelew 통합학교의 학생들은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공연을 했다. 라온아띠는 한복을 입고 참여해 전통 의상을 소개하고, 태권도 시범, 절 하는 방법 소개, 한국 노래 아리랑, 정선 아리랑, 그리고 필리핀 가요 Hawak Kamay를 공연했다. Lary 선생님과의 짧은 인연으로 일정을 쪼개어 찾아갔는데 많은 선생님, 학생들, 지역 주민들이 기쁘게 맞아 주어 기뻤다. 다음 달 초부터 진행할 RaonAtti School to 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1
San Carlos City 가는 길

2
날씨도 좋고! Kuya 기분도 째짐!

3
근데.. 뒤에 분홍 우산은 뭐?

4
오로라 누나다.

5
얘들아, 보고있니? 오로라 누나야.

6
덥져?.. 오로라와 소통하는 준

7
Guelew학교 도착. 열심히 활동 후

8
선생님들께서 Alex에게,

9
필리핀 인삼을 선물하고 싶다.

돌아오는 길, 여유롭게 쉬고있는 오로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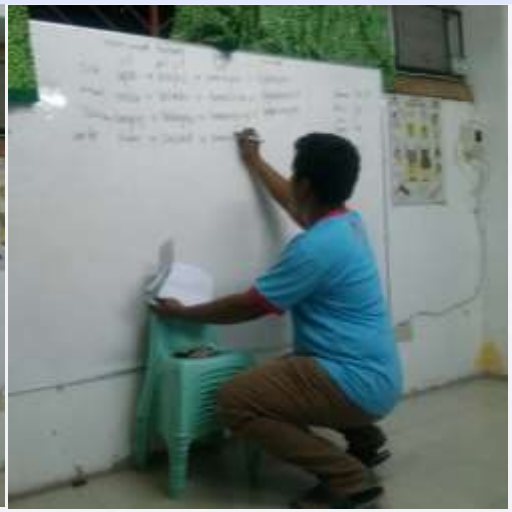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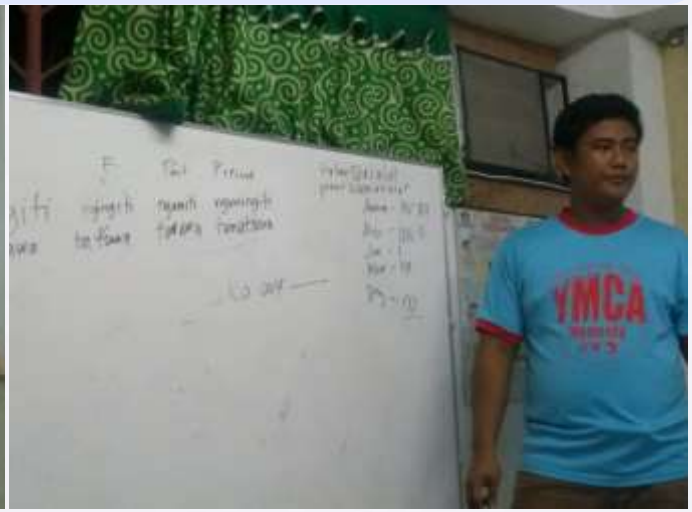
인삼이 더 소중하니까, 비켜.
11

12
아, 아름다운 여행이였어. 분홍우산의 여행 끝.

B. 언어수업[따갈로그어, 팡가시난어, 한국어]

▪ 10월 언어 수업 계획

9월에는 따갈로그어 수업, 영어 수업, 한국어 수업을 진행 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우리의 활동지인 Pugaro와 Dump Site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필리핀의 공용어인 따갈로그어 보다 지역 언어인 팡가시난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영어 수업 대신 팡가시난어를 배우기로 결정하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 따갈로그' 수업, 수요일 '팡가시난어' 수업, 토요일 '한국어' 수업으로 총 4번의 언어 수업, 매주 5시에 할 계획. 시간은 1시간 정도

▪10월 22일화요일 - 따갈로그어수업(With Reynald, Marvin, Emerson)

Tagalog Alphabet 프린트를 라온아띠들에게 나눠 주고 주로 사용하는 알파벳과 주로 사용하지 않는 알파벳을 알려 주고, 자음과 모음 발음을 따라하였다. 그리고Basic Tagalog Phrases를 배웠다. (how, what, who, why, where, 많이 쓰는 문장 등) 단어의 의미와 악센트를 배우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동사의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 진행형에 대해 이해하고 퀴즈를 통해 점수 경쟁도 하였다.

3. 활동소개

▪10월 23일수요일팡가시난어수업(With Arneth, Rolley)

이 곳의 봉사자인 Arneth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알파벳의 발음은 따갈로그와 같다. 마찬가지로 how, who, what, where, why을 먼저 배우고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으로 만들었다. 그 뒤 가장 일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배웠다. 질문을 하여 궁금했던 단어를 번역해주고 모두가 같이 배웠다.

	따갈로그어	팡가시난어
Wala	없다	있다
Meron	있다	없다

※가장 큰 차이점은 Wala와 Meron의 뜻으로 발음은 같지만 뜻은 정 반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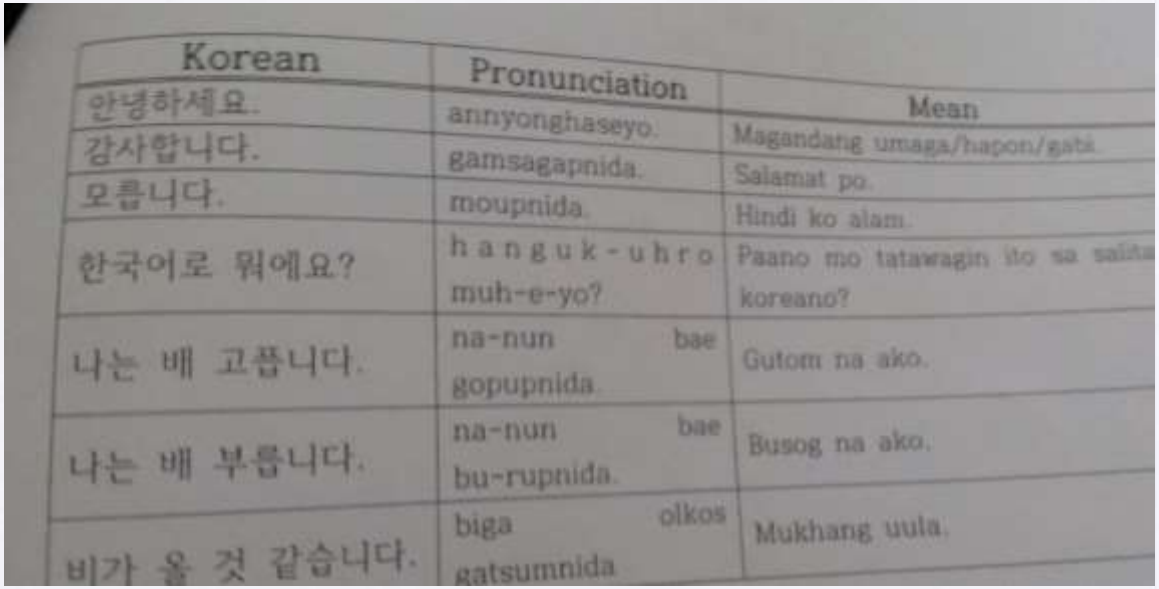
▪ 10월 24일 목요일 따갈로그어 수업(With Reynald, Rolley, Jeramae)

수업은 퀴즈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퀴즈는 빈칸이 있는 문장을 써주고 보기에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기였다. 서로 맞 바꾸어 채점도하였다. 두 번 째 퀴즈는 화요일에 배운 것들을 쓴 뒤 따갈로그어로 바꾸며 복습하였다. 마지막 세 번 째 퀴즈는 동물 이름을 따갈로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였다.

3. 활동소개

▪ 10월 26일 토요일 한국어 수업 (With 라온아띠)

현지 친구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한국어 수업으로 일상 질문과 답변, 많이 사용하는 문장들을 뽑아 나눠 주었다. 발음기호를 알려주고 우리가 발음을 먼저 말하면 현지 친구들이 듣고 따라 했다. 그리고 숫자, 의문사를 한국어로도 알려주었다. 현지 친구들은 한국어에 흥미를 가졌고 다음에도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 '수고했어, '잘먹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등 영어로 번역하기 힘들다. 앞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교재를 통해 이러한 한국 특유의 문장과 한글 읽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Korean	Pronunciation	Mean
안녕하세요.	annyonghaseyo.	Magandang umaga/hapon/gabi.
감사합니다.	gamsagapnida.	Salamat po.
모릅니다.	moupnida.	Hindi ko alam.
한국어로 뭐에요?	hanguk-uhro muh-e-yo?	Paano mo tatawagin ito sa salitang koreano?
나는 배 고픕니다.	na-nun bae gopupnida.	Gutom na ako.
나는 배 부릅니다.	na-nun bae bu-rupnida.	Busog na ako.
비가 올 것 같습니다.	biga olkos gatsumnida	Mukhang uula.

▪ 팡가시난어를 사용했을 때의 반응

팡가시난에서는 외국인인 우리가 언어가 150개가 넘는 필리핀의 공용어인 따갈로그어 보다 지역언어인 팡가시난어로 말을 했을 때 더좋아하는 것 같다. 실제로수업시간에배운것을 YMCA식구들과 우리의 활동지에 살고 있는주민들에게 사용해보니 따갈로그어로 말할 때 보다 팡가시난어로 말을 했을 때반응이 달랐다. 예를 들면 'Balbaleg ya salamat' (:매우 감사합니다.) 와 'Masantos ya kabuasan' (:좋은 아침입니다.) 등을 사용 하였었다. 현지 친구가 말하기로는 "따갈로그를 사용하면 외국인 이지만 팡가시난어를 쓰면 현지인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c. Academic Olympic

10월 19일 토요일 33rd Annual Province-Wide Academic Olympic이 있었다. 'Empowering Young People Through Change Agent'를 Theme으로 하며, Pangasinan Y의 고등, 초등학생 그룹인 Hi-Y, RTC 회원들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종목의 재능 대회였다. 이 Provincial 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이 Legion 대회로 그리고 전국 대회로 진출해 경쟁하게 되는, 33년이나 된 YMCA의 학생 경진대회이다.

한 주 전 12일에 초등-RTC A.O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태풍으로 연기가 되며 한 날에 대규모의 행사가 치러졌다. 라온아띠가 행사장에 가서야 이렇게 큰 행사였구나, 했을 정도로 준비 기간동안 Y 사무실은 고요했다. 요란스럽지 않게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 사무국과 장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일하는 모습이 라온아띠들에게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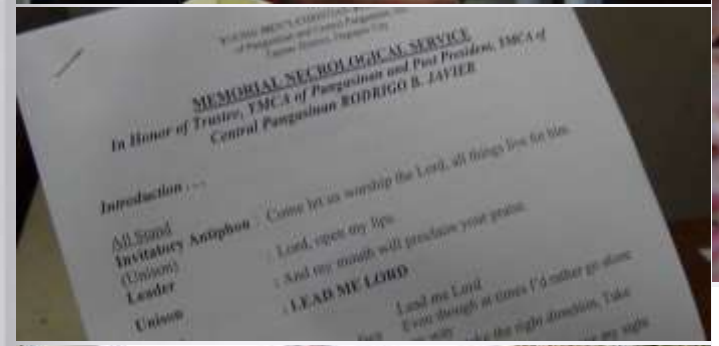
Annual Spelling Bee, Green Agent WS에서 만났던 많은 회원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반갑게 다시 만났다.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보다, 낯익은 얼굴들과 여러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즐거움이 있었다.
Alex가 Essay Writing, MinAh가 Drawing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참석한 학생-선생님들을 대상으로 End Poverty Campaign의 Open Booth를 운영했다. Drawing 부문 등 여러 대회 주제로 End Poverty가 다루어졌다.

D.Y식구들과 함께 한 시간

10/2 - Y 전 President 조문

11/4 -Brgy. Gayamen 방문

10/9 -Kuya Randy 생신



End Poverty Campaign

4. End Poverty Campaign

첫 단추 끼우기

2013.10.05. 토요일 오후 3시 YMCA 회의실!

꾸야 지미와 아띠들의 사전 미팅에서 End Poverty Campaign은 아띠들만의 캠페인이 아닌 현지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캠페인이라고 이야기가 모아져 아띠들을 비롯하여 YMCA Staff, SKY, YMCA 자원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띠들은 미팅 전 End Poverty Campaign의 취지를 'Poverty의 의미를 확장하여 그 의미를 나누고 Poverty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이라고 정리하고 Presentation을 통해 관심이 있는 Filipino 친구들과 함께 Campaign을 하기 위해 출국 전 캠프 때 이야기를 나누었던 자료를 통해 End Poverty Campaign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Poverty에 대한 다양한 반응.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던 친구, 쑥덕쑥덕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 End Poverty Campaign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였다. 설명이 끝난 후 꾸야 지미께서 End Poverty Campaign은 라온아띠만의 프로젝트가 아닌 함께하는 것이며 SKY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무작위로 5개의 그룹으로 나누었고 아띠들은 각각 한명씩 한 팀으로 들어갔다. 서로를 소개하고 End Poverty에 대해 각각 이야기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꾸야 지미께서 각 그룹별로 주제를 지정해주셨고 그 주제 안에서 End Poverty에 대해 토의 한 후 전체 발표와 피드백을 하고 첫 번째 회의를 마쳤다.

SKY (Samahang Kabataan sa YMCA)

따갈로그어로 **'YMCA의 청소년 그룹'** 이라는 의미이다. 청년층이 주축이 되어 지역 청년들 혹은 해외봉사자들과 함께 5개의 영역(교육, 생계, 리더십, 보건, 환경) 내에서 각종 사업을 직접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그룹.

그룹별 주제와 활동 방향 정리

그룹(1) Education - School to School
(연/다희 단원, leader: Francis)

그룹(2) Promotion
(민아 단원, leader: Min ah)

그룹(3)+(4) Income development & Livelihood for Pugaro, Dumpsite
(보경 단원, leader: Arneth)

그룹(5) Youth Development with SKY & HI-Y.
(진경 단원, leader: Rolly)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첫 번째 미팅 후 아띠들이 모여 그룹별로 End Poverty Campaign 진행 상황에 대하여 나눔을 하였다. "What is poverty?" 라는 질문에 한 그룹은 바로 "lack of education, lack of opportunity" 등 아띠가 공유하고 싶었던 확장 된 의미의 Poverty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반면 또 어떤 그룹은 poverty는 "Poverty is economy problem" 이라고 생각하고 필리핀보다 잘 사는 한국에서 온 라온아띠가 생각하는 poverty는 무엇이냐 되물으며 End Poverty Campaign 제안에 불편해 하는 그룹도 있었다. 나눔을 끝낸 후..
"음...?뭔가 이상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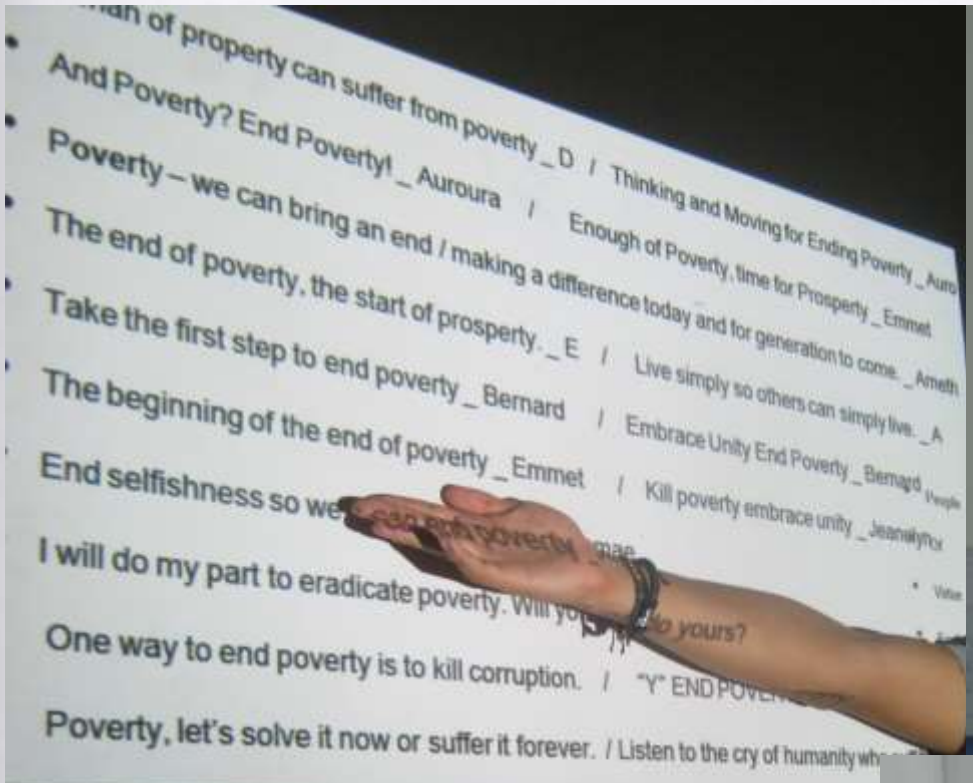
2013.10.09. **수요일 오후 7시 두 번째 미팅**

각 그룹별로 진행 상황 및 활동 계획을 나누었고 그룹 2의 promotion팀은 End Poverty Campaign을 진행하면서 브로슈어, 판매 물품 등을 만들어 전체적인 홍보를 담당하는 팀으로 두 번 째 미팅에서 민아 단원의 Presentation을 통해 이 홍보에 필요한 슬로건과 로고를 함께 선택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슬로건과 로고는 미팅 전과 미팅을 하면서 공모를 받아 거수를 통해 선택하였다. 슬로건을 선택하면서 SKY 친구들이 낸 슬로건들을 보며 단어 선택은 생각보다 강했고 **넓은 의미의 Poverty라기 보단 경제적인 Poverty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수를 통해 선택 된 로고는 End Poverty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모아져 모두 폐기하고 다시 만들기로 하면서 이 두 번째 미팅을 통해 아띠들은 무언가 이야기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의논 중인 슬로건과 로고들

4. End Poverty Campaign



4. End Poverty Campaign

후폭풍이 몰아치다.

사실 첫 회의 직후 잘 알지 못했다. 그룹 별로 라온아띠를 포함한 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 poverty에 대한 아띠들의 취지가 잘 전달되어 그렇게 그렇게 잘 흘러 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첫 회의 후 열흘 가량 이 곳 저 곳에서 후 폭풍이 몰아쳤다.

먼저 본격적인 Campaign 전 필요한 로고, 브로슈어, 판매 물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2의 활동이 선행 되어야 했는데 그룹 2의 친구들은 연락이 되질 않았고 결국 leader였던 민아 단원 혼자 모든 디자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민아 단원의 sos로 민아 단원은 전체적인 디자인 및 브로슈어를, 보경 단원은 다시 만들기로 된 로고와 판매 물품을 디자인하면서 그룹 2의 활동은 결국 아띠 둘만의 활동이 되어버렸다.

그룹 1과 5는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Campaign의 목적 및 방향에 대한 이해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회의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이 Campaign을 왜 해야 하는지, End Poverty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육을 한다면 실행 범위는 어디 까지 해야 할 것인지 등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고 결국 이해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버리기 일수였다.

4. End Poverty Campaign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

사무국과의 Reflection시간에 캠페인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일도 있었다. 꾸야 지미께서는 "라온아띠가 왜 다른 나라들을 엮는 활동인지 아느냐?, 라온아띠는 왜 존재하느냐?, 라온아띠가 왜 좋은 친구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며, 너희는 이 곳에 왜 왔느냐"는 물음을 던지셨다. 자신만의 방식과 생각을 고집하거나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친구라는 이름을 걸고 타국까지 와서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보라고 하셨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풀기

열흘 동안 많은 폭풍들을 겪으며 아띠들은 다시 한번 Poverty가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Campaign이란? 함께한다는 것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안에서도 각자 이해하는 Poverty와 Campaign의 방향, End Poverty Campaign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한 생각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것에 대해 늦은 밤까지 끝장토론을 하였다. 한번 들어 보도록 하자.

아띠들의 끝장토론!

4. End Poverty Campaign

진경(Jun) 단원

자신들이 가난하다 생각하지 않는 필리핀 사람들 그리고 항상 수줍게 웃는 웃음들. 나는 End Poverty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외국인인 내가 End Poverty를 외치며 빈곤하다 생각하지 않는 현지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난을 인식 시켜주는 것 같다.

다희(Dainey) 단원

경제적 빈곤만이 빈곤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했던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네 입장에서만 생각한 END POVERTY였던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여 경제적인 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나라라서, 경제적인 것 뒷면에 있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올 수 있는 빈곤 등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당장 오늘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이 곳, 필리핀에 와서 '경제적인 것 말고도 다른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내 자신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보경(Aurora) 단원

우리 그룹 안에서 Poverty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경제적 빈곤을 너머 우리가 공유하고 싶었던 다양한 의미의 Poverty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나는 단지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하는 Poverty가 경제적 빈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보단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이해가 다르듯 필리핀 친구들 사이에서도 Poverty란 개념이 각자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번 End Poverty Campaign 중 하나로 Pangasinan 지역 University에서 우리와 또래가 비슷한 대학생들과 'What is poverty?'를 주제로 Poverty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 싶다.

아띠들의 끝장토론!

4. End Poverty Campaign

연(Alex) 단원

End Poverty 캠페인은 빈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며 이것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우리와 만난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이 갖고 있던 빈곤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빈곤의 개념 확장과 재인식보다는 경제적 빈곤의 실질적인 퇴치 방안에 더 관심이 있었다. 선진국인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필리핀의 빈곤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불러일으킨 기대였을 수도 있다. 물론 다수에게 빈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은 경제적 빈곤뿐만이 아님을 상기시려는 캠페인의 의도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민아(MinAh) 단원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Campaign 진행 과정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불거진 것.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일을 할 때 당연히 예견되는 부분이다. Poverty의 다양한 지점을 생각해 보자는 것, 그리고 Poverty를 끝내기 위해 가능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E.P.C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Campaign의 주제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생각이다. 다만 'Poverty' 화두에 대해 이해가 다른 것은 이 캠페인을 같이 일하는 Y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고, 수많은 구성원이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리고 대화하는 지금의 상황은 Campaign 디자인이 위에서 전달된 것의 아쉬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어려움 자체가 실은 E.P.C의 Real 한 형태인 것 같다. 하루에 빵 터지는 Event 언제든 금방 기획해 할 수 있다. 이런 진통이 영어 도구를 가지고 조금 더 대화가 가능한 필리핀 라온아띠 End Poverty의 특성인 것 같다. 다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에 대한 일종의 비관을 갖고 일하게 된 것, 진행을 하기에는 편하지만 서로에 대한 몰이해, 미움의 Poverty를 얻게되는게 아닐까.

4. End Poverty Campaign

'Talk, Share, Act and End Poverty!'

브로슈어가 나오면서 Campaign의 큰 그림이 정돈 되었다. Pangasinan의 End Poverty Campaign은 'Poverty의 의미를 넓히고 다양한 형태의 빈곤을 다루며, 빈곤을 가려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 보단 우리의 문제로서 함께 이야기 하는 것, 그리고 빈곤을 끝내기 위해 가능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 으로 정리하고, 'Talk, Share, Act and End Poverty!'로 슬로건을 정하였다.

완성 된 브로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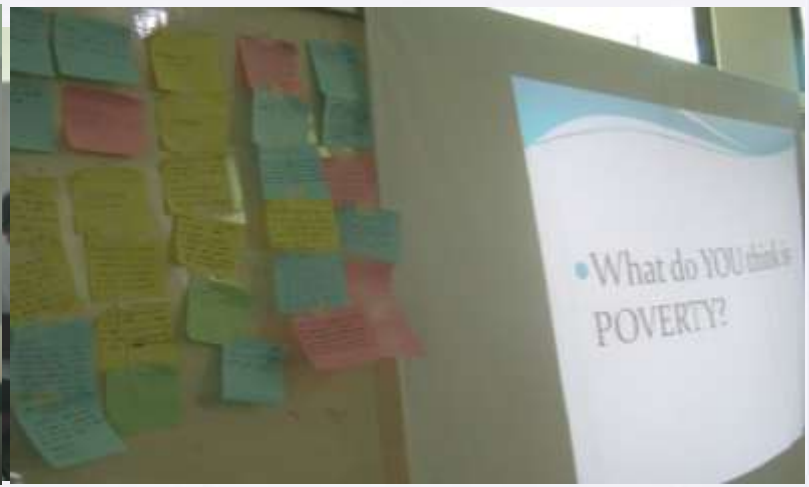
4. End Poverty Campaign

Get Set Ready~~ Go!

2013.10.18. University of Luzon(UL) '빈곤 이해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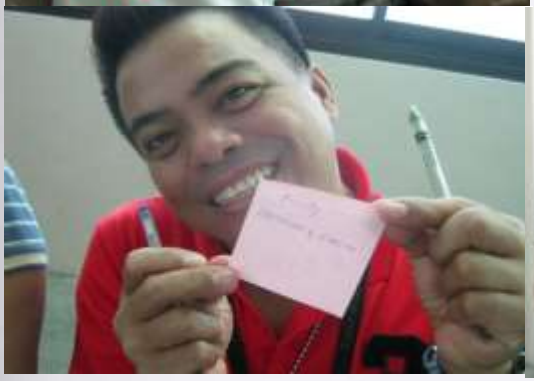
아띠들이 많이 고민했던 Poverty가 단지 경제적 빈곤만이 아닌 다양한 빈곤이 있고 그 빈곤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대학교의 젊은 청년들과 Poverty에 대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빈곤 이해 Workshop' 을 진행하였다.

먼저 **'매년 10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빈곤 이해 Workshop' 은 시작 되었다. 매년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퇴치의 날' 로 Poverty는 경제적 빈곤을 너머 다양한 Poverty가 있고, 그 예로 한국과 필리핀의 자살률 수치를 보여주며 '경제력이 높은 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학생들은 한국이 자살률 2위라는 것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며 각각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바로 'What do YOU think is POVERTY?'라는 질문을 띄우고 각자 생각하는 Poverty를 포스트잇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Poverty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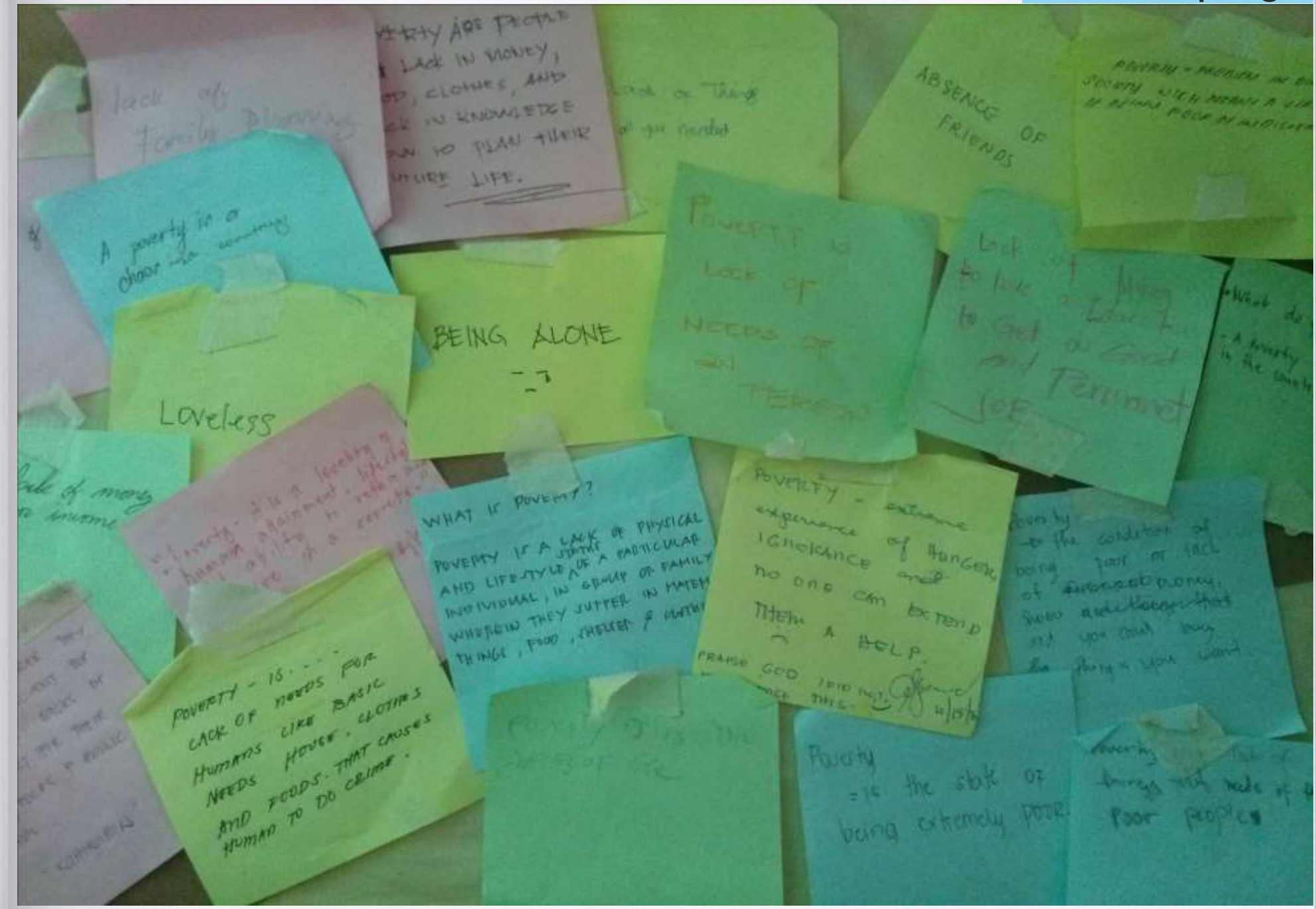
4. End Poverty Campaign



포스트잇을 받고 바로 쓱쓱 적기도하는 친구도 있었고 썼다 지웠다 하며 고민하며 쓰는 친구들도 있었다. 다 적은 포스트잇을 앞으로 모두 모아 하나씩 뽑고 그 내용을 쓴 학생이 직접 나와 자신이 생각하는 Poverty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 아띠들의 기억에 남는 Poverty는 **'lack of family planning'**였다. 'lack of family planning'를 쓴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필리핀은 한 가정에 보통 5~10명의 아이들을 낳는데 가족 계획 없이 무작정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경우 힘들 수 있다. 라는 말에서 'lack of family planning'은 필리핀의 가족 계획 측면에서 생각 할 수 있는 Poverty였던 것 같다. 그 외 'Being lonely' 'loveless' 등의 Poverty가 있었다.

What do YOU think is Poverty?

4. End Poverty Campaign



2013.10.19 Academic Olympics ‘End Poverty Campaign Promotion’

4. End Poverty Campaign

그룹 5가 중심이 되어 Academic Olympics에 참여한 초등, 고등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End Poverty Campaign을 진행하였다. 매년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임을 알리고 'What do you think is poverty?'란 질문에 각자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쓰고 End Poverty가 쓰여 진 현수막에 스티커와 함께 붙임으로써 End Poverty Campaign의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 참여 하도록 하였다. 또한 브로슈어를 통해 End Poverty Campaign의 소개 및 핀 판매, Donation box의 Promotion으로 라온아띠 Philippines Pangasinan팀의 End Poverty Campaign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캠페인임을 알렸다. 또한 Academic Olympics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생대회의 주제는 Poverty로 초등, 고등학생과 그림을 통해 Poverty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End Poverty Campaign' is not the END.

4. End Poverty Campaign

라온아띠 Philippines Pangasinan팀은 캠페인 주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End Poverty Campaign과 각종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1. School-to-School

다구판 시티와 그 주변 지역의 학교를 찾아다니며 End Poverty Campaign, 그리고 라온아띠가 하는 각종 활동들을 홍보하고 그 중에서도 Bonuan 지역의 Dumpsite의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2. Livelihood Program

End Poverty Campaign 회의에서 구성된 그룹들 중 그룹 3,4가 제안했던Livelihood Program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캠페인 주간 이후에도 계속 진행한다.

3. Bonuan Dump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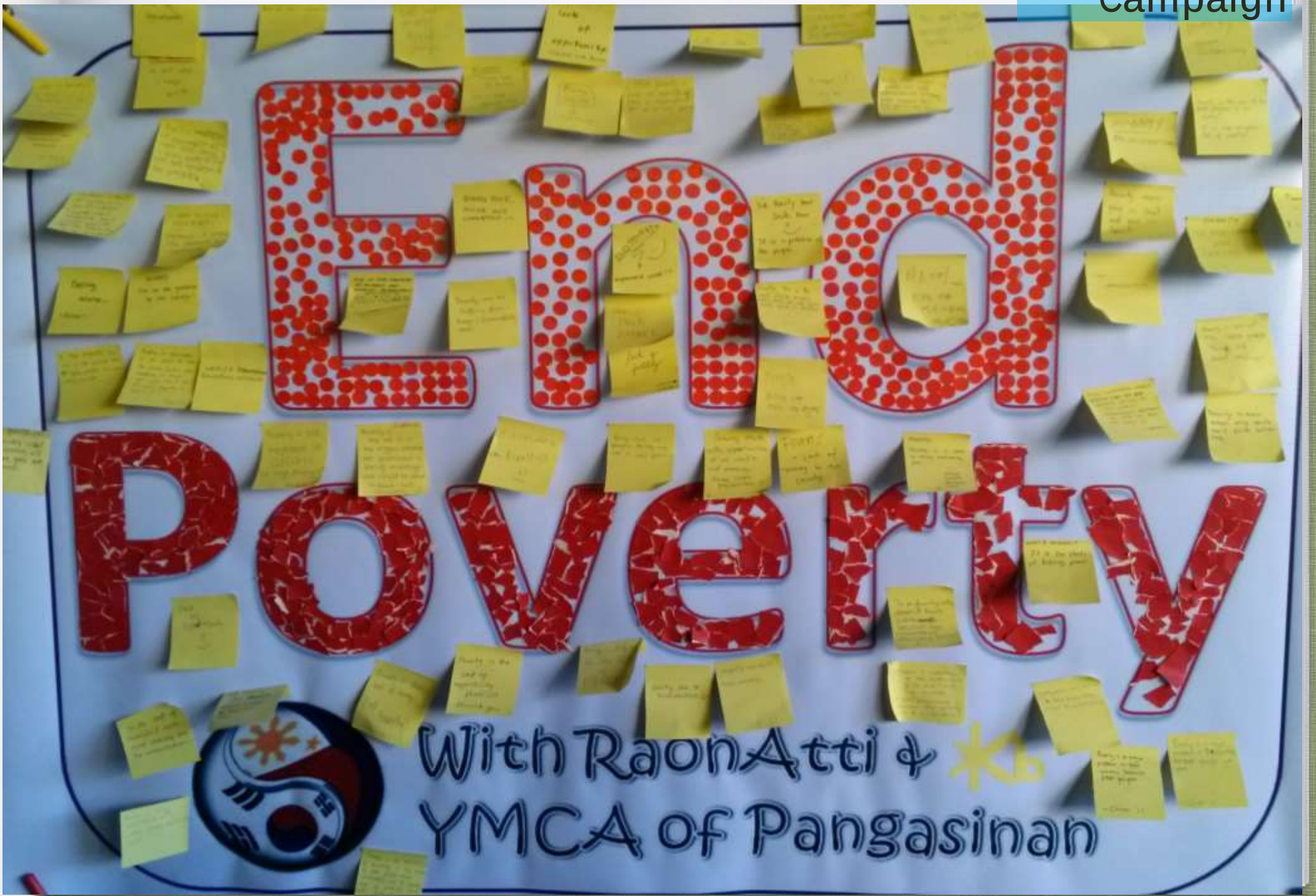
Dagupan City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인 Bonuan Dumpsite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해 YMCA of Pangasinan과 함께 노력한다.

End Poverty 진행 과정

4. End Poverty Campa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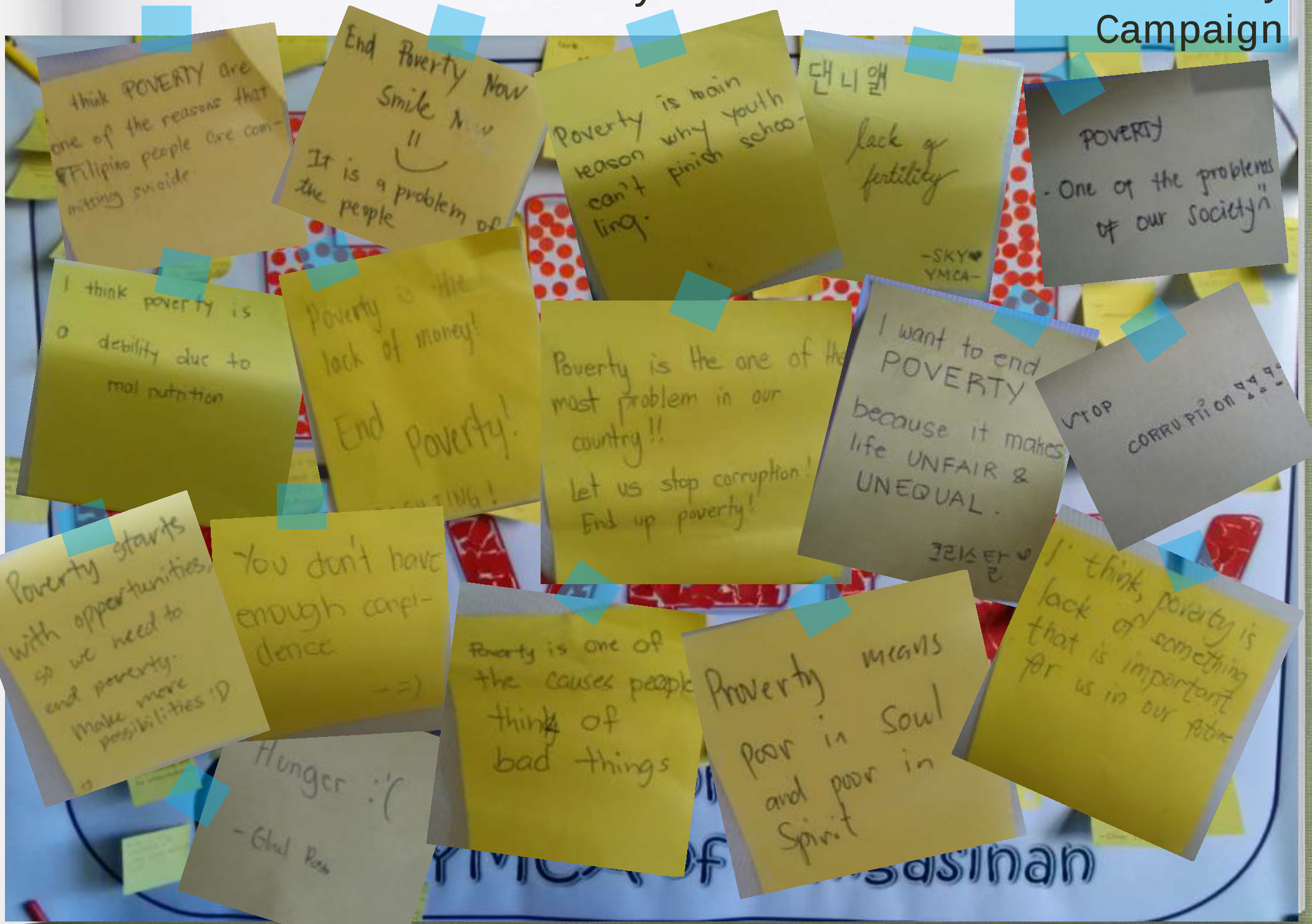
완성 후 팡Y 2층 복도에 걸어놓고 친구들과 공유

4. End Poverty Campaign



What do YOU think is Poverty?

4. End Poverty Campaign



A. Pugaro에서 터를 닦다.

푸가로는 이전부터 YMCA 사업 대상 지역(adopted barangay)으로 선정되어 이곳에서는 물 정화시설, 재봉사 협회 등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제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실로 이 사업들을 통해 푸가로 주민들은 생활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YMCA는 앞선 프로젝트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사업을 궁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동안 지역을 방문하고 YMCA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논의는 크게 교육 프로젝트, 생계 프로젝트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마침 YMCA의 자원봉사자들, 장학생들에게도 푸가로에서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 과제가 떨어진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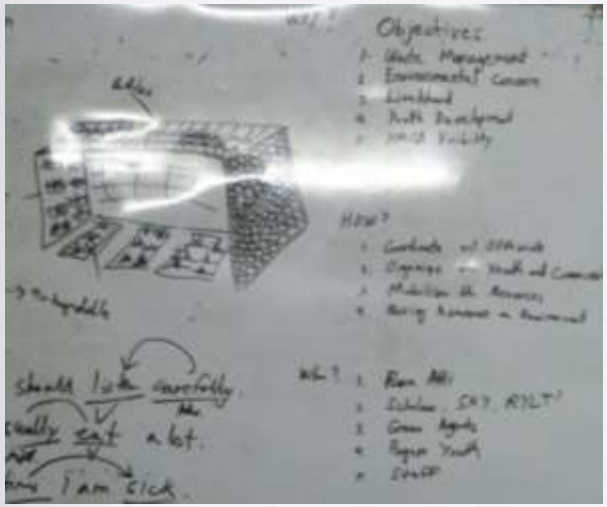
지금까지 푸가로에서 사업을 시작해보려는 노력은 여럿 있었다.

-라온아띠의 사업 구상

-RYLTI(4명으로 이루어진 장학생+봉사자 그룹)의 제안(훈제 생선)

-스태프의 제안(PET병으로 만든 온실)

-END POVERTY 프로젝트 그룹 중 livelihood 팀(훈제 생선, 빨대로 만든 가방)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라온아띠 회의 도중 아직 그 지역에 대해 잘 모른 채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먼저 자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바랑가이 대표와도 회의를 가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팡가시난에 파견된 첫 기수이니만큼 터 닦기에 집중하자' 였다.

Pugaro _ 교육 활동

데이케어센터 보조활동, 다희 단원의 영양/위생 수업, 진경 단원의 태권도 수업: 푸가로의 아동들 학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서, 향후 다른 사업의 구상과 실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터를 닦는 활동으로 삼기로 했다.

-새학기가 시작하는 11월 4일부터 데이케어센터 아동들을 상대로 명찰 만들기와 몸놀이를 시작하기로 했다(공교롭게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던 찰나 팡가시난 내 교사 연수와 방학이 겹쳐 데이케어 센터가 2주 가량 비어있게 되었다. 따라서 시작 날짜가 다소 지연되었다.)

-대개 데이케어 센터에 아이가 있는 동안 아동들의 어머니들은 센터 밖에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아동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에게도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희 단원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계획 중이다.

-진경 단원은 특기를 살려 Pugaro integrated school(초등+고등)에서 태권도 수업을 진행 중이다. 대상은 40 여명의 학생들. (진경 단원은 Dagupan City National High School에서도 기존에 태권도를 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 진행 중)

Pugaro _ livelihood

***생계** : 먼저 바랑가이 의회와 대화의 장을 열어 주민들을 위한 생계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고, END POVERTY 캠페인에서 결성됐던 livelihood 팀과 꾸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바랑가이 의회와의 미팅은 10월 15일, 푸가로의 바랑가이 홀에서 진행되었다. 바랑가이 캡틴으로부터 그동안 푸가로에 어떤 생계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인지, 성공한 것은 왜 성공했으며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 등등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성공사례 : Sewing Association(지속적 훈련과 지속적 물자 지원)
실패사례 : 비누만들기 사업(가격경쟁력이 없었다), 양초만들기 사업(수요가 일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생계 프로그램이 지역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현재 섬에서 버려지는 수많은 조개껍질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 국수 만들기 사업(주민들이 배를 타고 나가 시장에서 비싼 값에 사오는 경우가 대부분) 등을 지역 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하셨다. 다만 본 사업은 시장 조사와 기술 이전, 시설 갖추는 것이 힘들어 적은 자본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라는 봉사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END POVERTY 캠페인 때 결성되었던 livelihood 팀과의 회의 진행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다. 바랑가이 캡틴과의 미팅 내용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 사람들에게 생계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전략을 연구할 때, 생계가 필요한 사람 중 누구를 이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로 선정해서, 뭘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팔 것이며, 가격은 얼마로 할 것인가 등등 전문적 지식과 조사 없이는 정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B. RaonAtti Project in Dumpsite

답사 결과 Bonuan의 DWMD에 있는 덤프사이트는 교육, 영양, 위생, 의료 등등 많은 측면에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열악한 환경이라는 데에 단원들 모두 동의했다. 덤프사이트에서도 푸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들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관계를 쌓아나가고, 그 지역과 삶에 대해 알아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차이점이라면 푸가로와 달리 덤프사이트에는 이렇다 할 교육기관이 없어서 데이케어센터를 보조한다든가 하는 식의 활동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아동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Blue house'(정부에서 덤프사이트 주민들에게 대체 생계수단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은 건물. 현재 이 프로젝트는 중단된 상태다.)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첫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몇 차례 덤프사이트를 답사하던 도중 우리는 한 여자아이의 팔이 뒤틀린 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였다. 이 날의 경험, 덤프사이트를 같이 답사한 스태프의 사업 제안, 그리고 라온아띠 단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덤프사이트에서 할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완성하였다.

계획에는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교육/의료 방면에서 Dump Site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 등이 있다. 이젠 이 계획들이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져 11월을 의미있는 활동으로 채울 수 있었으면 한다.

Dumpsite에 다가가며,

9월 18일, 처음으로 Dumpsite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 다시 덤프사이트에 찾아가기까지 한달이 걸렸던 마음 속 거리감. 다시 Dumpsite에 찾아간 후 10월 후반부는 Dumpsite에 정을 붙이게 된 시간이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 온 아이들, 조심스레 다가간 우리를 반겼던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매일 다시 가고 싶어진 것이었다.

조금씩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Y Scholar Rolly가 Dumpsite에서 정규적으로 함께 활동하기로 하면서 아이들 대상의 Atti Klase가 시작되었다. 10대 중반-20대 후반 여성들의 요청으로 영어 수업도 준비되었다.

Dumpsite에 다가가며,

Waste Picking 일에도 다가가 보았다.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의 일터였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일하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 마을쪽에서 노는 아이들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도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을 하는 아이와 마을에 머무는 아이는 어느정도 나뉘는 것 같았다.

Dumpsite에서 지낼수록, 우리가 상상했고 처음 느꼈던 것 처럼 암울한 일터이며 고통스러운 삶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소득은 적고, 의료를 접하기 어렵고, 위생 환경이 좋지 않으며,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렵다.

RaonAtti Project Plan in Dumpsite

5. 아띠 Project

Dumpsite의 환경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뭘 할 것인가 더욱 고민하기 시작했다. 라온아띠, 함께 동행했던 Volunteers, Staffs, Dumpsite 주민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대화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Dumpsite에서 할 일의 계획을 그렸다.

- 라온아띠가 남은 기간동안 덤프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일
  : 라온아띠가 소화할 수 있는 아동 – 성인 교육 / 덤프사이트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동 돌봄과 의료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방법 마련 /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덤프사이트에 모으는 것.
- 그래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라온아띠의 액션 플랜으로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1. Atti Klase in Dumpsite (위원장 : Aurora)

- 라온아띠가 매주 화, 토요일에 덤프사이트에 방문하여 아동과 성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규 수업을 시행.

2. 정규 Day Care Center 설립 추진 (위원장: Alex)

- Dumpsite에 정규 Day Care가 설립 가능하도록 논의를 궤도에 올려놓는 것.
- 문제 : 대부분의 취학연령 아동이 학교에 등록되어있지만, 용돈과 차비의 문제로 많은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함. 대부분의 가정이 생계가 곤란하고 자녀의 수가 많아 부모가 아동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함.

-> Staffs Feedback : 필리핀에서는 시작하지 않은 일에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다.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Atti Klase에서 시작하자. / 또한 이곳에 Day Care Center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지 점치는 것도 중요하다. 예상을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3. 정규 의료봉사단 연계 추진 (위원장:Alex)

- 기초 의료가 매우 열악한 Dumpsite에 정기적, 장기적으로 방문할 지역 의료봉사단을 정착시키는 것.

-> Staffs Feedback : 의료단체, Sponser가 될 단체들도 이미 이러한 문제 익히 알고있다. 그들이 도움을 시작하게 하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서두르기 보다는 마을의 실질적 현황을 잘 아는 것이 출발이다. 일단 Essential Data를 구축하자.
-> Atti Action: 11월 초 마을 현황 Survey 계획 / Dumpsite 관할 구역의 바랑가이 Office를 찾아 정보 Date 확인하기

4. Dumpsite Bluehouse 환경조성 (위원장 : MinAh)

- Dumpsite 초입의 Bluehouse 를 아동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아띠가 먼저 시작하고 주민들 스스로 함께할 수 있도록.
- 환경 조성 사업 중 일부를Public Event로 기획해 Dumpsite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학생)활동가 군 조성.

-> Staffs Feedback : Bluehouse 소유주체인 Dagupan City Waste Management Division의 허가가 중요하다.

5. School to School (위원장 : Dainey / Jun)

- School to School을 통해 필리핀의 쓰레기 관리 문제에대한 관심 환기, 나아가 Dumpsite의 여러가지 문제를 이슈에 올리는 것.
- 가칭 벽화 이벤트의 모집을 안내하는 것. - End Poverty Campaign의 연장선 - 기간 : 11월 4일 – 11월 23일

-> Staffs Feedback : Green Agent WS 참여 11개 학교부터 시작.

아띠의 치열했던 고민, 그 현장 속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라온아띠여서 맞닥뜨린 문제지만, 또한 라온아띠여서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없었던 아주 라온아띠스러운 고민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의 주요 활동지인 덤프사이트에서 29일. 우리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해변 모래사장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킴벌리라는 5살의 여자아이가 넘어졌고 아이는 너무나도 서럽게 울었다. 모래사장에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한눈에 봐도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의 오른팔이 크게 부어있었고, 뼈가 어긋난 것인지 팔의 모양도 왼쪽 팔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1주 전에 킴벌리가 왼쪽 팔로 크게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 점점 상태가 심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이는 우리와 손을 잡을 때도 항상 왼손으로만 손을 잡고 뛰어다닐 때에도 오른팔로 왼팔을 부여잡고 뛰어다니곤 했던 것이었다.

이 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킴벌리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였다.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졌다.

5. 아띠 Project

	의견1	의견2
1.	아이의 상태는 누가 보아도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앞으로 팔을 영영 쓸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못 봤으면 못 봤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이상, 우리는 아이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우리도 물론 킴벌리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매우 아프고, 마음은 당연히 아이를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이다.
2.	추후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염려하여 아이를 이대로 방치하여, 만약 팔을 쓸 수 없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아띠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킴벌리 아이 한 명을 도와줌으로써 마을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료와 관련된 수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치료 서비스를 주지 못할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모두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라온아띠가 더 이상 덤프사이트에서 활동할 수 없을 수도 있다.
3.	킴벌리 한 명을 치료해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역차별 문제는 지금 한 시가 급한 킴벌리를 두고 걱정할 문제인가?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아이를 먼저 치료하고, 추후 염려되는 문제는 우리가 또 고민하여 문제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라온아띠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킴벌리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덤프 사이트의 수많은 아픈 사람들 중 킴벌리가 우리 시야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 그 아이보다 훨씬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더 아프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다.
4.	라온아띠의 영역에서 굳이 '의료'라는 부분을 꼭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가? 국제자원활동에 어떠한 부분은 포함되고 아니고를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인가? 의료든 다른 것의 형태이든 간에 그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역량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라온아띠는 의료봉사단이 아니다.

5. 아띠 Project

이렇게 두 의견으로 나누어진 아띠들이었지만, 모두들 감성과 이성을 오가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팡가시난 와이, 한국의 안양 와이, 한국 사무국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지만, 여전히 어떠한 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다가오는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요일이지만 덤프 사이트에 가서 킴벌리의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오자고 하였다. 다행히도 아이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팔의 붓기가많이 빠져있는 상태였다. 확인해 보니, 정식 병원은 아니지만 필리핀 전통적인 동네의원과 같은 힐롯에게 어느 정도 기본 치료를 받은 상태라고 하였다. 팔의 붓기는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아이의 팔 모양은 완전하지 않다. 결국 아이를 쉽게 도와줄 수 없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아직 의료의 문제에는 섣불리 다가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만 이 일을 계기로 덤프 사이트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으로는 당장 11월에 덤프사이트에서 survey를 실시하고 조사자료를 토대로 신뢰 가능하여 다른 ngo 및 의료봉사팀과 협력할 수 있는 덤프사이트 주민들의 객관적인 정보들을 자료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라온아띠가 덤프 사이트에서 빠지더라도 주기적으로 덤프 사이트에 방문하여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현지 의료봉사팀을 꾸리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Aurora & Danielle

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

이름: Danielle
나이: Dalawangpu(20**살**)
특징: **한국말 배우기**
자주하는 말: **온니 쉬 마려워.**

2박 3일의 홈스테이를 가기 전 걱정이 앞섰다. **Danielle은 YMCA의 자원봉사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홈스테이가 결정되고 나서 Danielle은 조심스럽게 목, 금, 토 2박 3일 중 목요일이 당직이라 회사에서 자야하는데 괜찮으냐고 물어봤다.

"오우! 회사에서 당직이라니! 내가 언제 필리핀 팡가시난에 있는 회사에서 자보겠어! 너무 좋다!" 라곤 했지만 한켠으로는 그 친구에게 민폐가 될 까봐 재차 물어봤다. "내가 거기서 자도 돼? 정말 괜찮아? 나는 너무 좋은데.. 내가 짐이 될까봐 걱정돼!" Danielle은 이미 Boss에게 허락을 받았고 내가 오면 다들 너무 좋아 하실거니 나만 괜찮다면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그럼 가자!!Let's go! Let's go!!:D" 그렇게 바람 부는 목요일 오후 5시 YMCA에서 Danielle을 만나 회사로 갔다.

Danielle이 일하고 있는 곳은 DWMD(Dagupan city Waste Management Division)와 CDRRMO(City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Office) Operation Center가 있는 곳으로 CDRROM의 부서는 크게 Calamities와 Accidents/Emergencies 부서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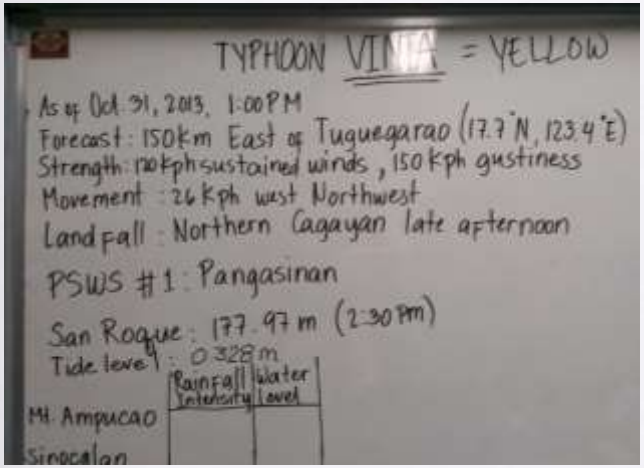
Calamities는 Typhoon, Earthquake, Surge storms, Tsunami, Flood 등 Dagupan city 안의 재난재해를 관측하여 시민들이 재난재해에 대해 준비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부서이다. Accidents/Emergencies는 Communication Room에서 사고가 났을 시 무전기를 통해 듣고 장비를 챙겨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부서이다. Danielle이 일하는 부서는 Calamities로 사무실 안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건 화이트보드에 쓰여 진 태풍 정보였다.

안 그래도 바람이 심상치 않다 하였더니 태풍이 오늘 내일 Dagupan city를 지나가서 이 태풍에 대비해야해서 오늘 당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Aurora & Danielle

Office에서의 하룻밤

Danielle의 Boss와 인사를 나누고 Accidents/Emergencies Room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그 곳에는 7분의 꾸야가 계셨는데 처음 뵈었지만 왠지 모를 친숙함에 꾸야~꾸야~하며 팡가시난어로 **"Masantos ya labi(안녕하세요의 저녁인사)"**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팡가시난어를 할 줄 아냐며 반겨주셨다. 이어서 **"Syupa tay crush mo?(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Undala lay eleng ko(저 코피 날 거 같아요)"** 등 내가 아는 팡가시난어를 막 쏟아냈더니 웃겨죽겠다며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셔서 팡가시난에서 살고 있어서 팡가시난어, 따갈로그어를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옆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다. "꾸야~~!! 오늘 메뉴가 뭐에요?" , "시니강인데 먹어볼래?" "네!" 대답은 힘차게 했지만 **사실...겁이 났다.** 필리핀에 도착하여 처음 먹은 음식 중 하나가 '연어 시니강' 이었는데 생선을 잘 못 먹는 나는 연어가 살아있는 채로 헤엄치고 있는 듯한 시니강의 모습과 맛에 너무 놀랐었기 때문이었다.

순간 연이, 민아, 다희, 진경이 우리 친구들이 떠올랐다. 한 숟가락을 예상했던 나에게 꾸야께서는 입가에 미소를 씩~ 지으시더니 컵을 가져오셔서 시니강을 한 컵 가득 담아주시고 먹어보라고 하셨다. 심호흡 한번 하고 한술 떴는데....한술을 떴는데... 오잉? 맛있네!! 그래서 내가 뜬금없는 마싸랍 인가보다. 알고 보니 오늘 내가 먹은 시니강은 돼지고기 시니강으로 그렇게 나는 시니강의 참 맛을 알아버렸다. **"마싸랍 시니강~~b"**

Aurora & Danielle

Office에서의 하룻밤

저녁을 먹고 Danielle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궁금해졌다.

"Danielle 팡가시난 YMCA에 오게 된 계기가 뭐야?"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 자원봉사가 하고 싶어 내 베스트 프렌드인 Gabriel, Bernard에게 자원봉사 할 곳을 물어봤고 YMCA 장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YMCA를 소개시켜줘서 오게 되었어."

"봉사활동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어?"

"7월에 2주 동안 타이완 YMCA와 함께 한 서머 워크 캠프를 참여하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일이 끝나자마자 YMCA가서 봉사활동하고 다시 그 다음날은 회사에 출근해서 또 일하고 끝나면 봉사활동하는 생활을 이주를 했었어.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즐거웠어. 나는 그 이주 동안 행복했고 지금도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활동을 통해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껴. 사실 봉사활동을 하고 싶단 마음이 처음 들었던 것은 **내 안의 성취감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거든"

"그랬구나! 회사 다니면서 봉사활동 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다 Danielle!"

"쑥쓰럽다. 근데 힘들긴 좀 힘들었어...ㅋㅋㅋ" 그렇게 Office에서의 1박은 지나갔다.

우리 활동지 중 하나인 Pugaro에서 출퇴근하시는 꾸야에디.
홈스테이 후 Pugaro에서 활동하다 우연히 만나기도 ☺

Aurora & Danielle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매년 11월 1일은 All Saints' Day로 묘지를 방문해 세상을 떠난 분들을 찾아뵙고 그들을 추억하는 날이다. 우리는 먼저 Danielle 집에 가서 씻고 묘지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Danielle의 집은 라온아띠 하우스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금방 도착했다. 집에 들어가니 소녀 같은 Danielle의 어머님과 밥은 먹었냐고 말씀해주는 할머님, 할아버지, 그리고 쑥쓰러움을 많이 타는 남동생 4명이 나를 반겨주셨다. 늦은 점심을 먹고 씻고 집을 나서는데 묘지로 바로 가기 전 Danielle의 집에서 5분 거리에 Danielle의 친척들이 모여 살고 계셔서 Danielle의 삼촌, 이모, 사촌들에게 인사를 드린 후 묘지로 출발하였다.

처음 들린 묘지는 ROMAN CATHOLIC CEMETERY로 늦은 오후에 가니 성인을 기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Danielle을 따라 묘지 앞에서 기도를 드린 후 Danielle은 한 공터에 초들이 밝혀진 장소로 나를 데려갔다. Danielle이 이 곳은 묘지가 없거나 혹은 타지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초를 밝히고 기도를 하는 곳이라고 설명해주었다. 나에게 초를 하나 건네주며 **나의 가족들은 지금 한국에 있으니 여기서 기도를 하라고 말해주는 Danielle**을 보니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느껴져 너무 고마웠다.

Aurora & Danielle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다른 묘지로 이동했다. 처음 갔던 묘지와는 형태가 다른 묘지에 Danielle의 외가 친척들이 계셨다. 인사를 드리자마자 할머님께서는 밥부터 먹으라고 접시를 주셨다. 묘지 주변에는 가족들 단위로 돗자리, 상을 놓고 각각 집에서 음식을 해와 함께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마치 차례를 지내는 한국의 명절 같았다. 집에서 해 오신 음식은 정말 맛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폭풍 포크질을 하다 포크에 얼굴을 긁히기도 하였다.

필리핀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힘든 건 없는지, 한국은 어떤지 등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Danielle이 다른 묘지로 가자고하였다. '응? 여기말고 또 있어?' 하며 갔는데 외가 친척들이 계신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낮에 뵈었던 친가 친척들이 나를 반겨 주셨다. 이윽고 외가 친척들도 친가 묘지를 방문했는데 집도 가깝고 묘지도 멀지 않으니 서로 자주 왕래 하신다고하였다. **마치 하나의 대가족을 보는 느낌이었다.**

Aurora & Danielle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Danielle의 집에 도착하여 어제 다 못한 한국어와 따갈로그어 공부를 시작하였다. 한국어 배우기를 좋아하는 Danielle이 궁금한 것을 영어로 물어보면 한국어로 대답하고 Danielle은 나에게 따갈로그어를 알려주었다. **씻을래? 잘래? 잘자. 그렇지? 배고파? 괜찮아?** 등등 나에게 물어보는 것들은 모두 나에게 나의 의사를 물어보는 말들이었다.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듯이 Danielle**은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는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도 나를 보면 처음 하는 말은 **'언니 잘 있었어?'** 이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Danielle의 어머님은 Danielle을 '아떼' 라는 호칭으로 부르곤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필리핀에서 '아떼' 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에게 존경의 표현 혹은 친근한 표현' (남성에겐 '꾸야')인데 왜 '아떼' 라고 부르실까 궁금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필리핀 가정에선 장녀, 장남에게는 부모님이 '아떼' 혹은 '꾸야' 라고 부르는데 이 이유는 동생들이 장녀, 장남에게 존경의 표현으로 '아떼 ' ' 꾸야 '의 호칭을 부를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먼저 부른다고 말해줬다. 이 말을 듣는데 내가 잘 이해 못하니까 Danielle이 한 번에 정리해 줬다.

"Aurora 언니! '아떼' is '언니' " 2박 3일의 홈스테이가 끝난 후 어머님께서는 집도 가까우니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하셨고 나를 안아 주셨다. **그렇게 나에겐 대가족이 생겼다 :)**

Alex & Bobby

난 Bobby Lopez의 집에서 2박 3일을 지냈다. **Bobby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 미남 호텔 직원**이며, Salapingao라는 섬마을에 살고 있다. 10월 31일, 홈스테이 약속시간이 되자 Bobby와 나는 YMCA를 나서 바로 보트를 타러 갔다. 가는 길에 Bobby의 미모의 조카딸 Grace를 만나 같이 배를 탔다.

어둑어둑한 저녁에 보트에서 보는 도시와 강의 풍경은 정말이지 황홀했다. 물결 따라 들썩이는 보트 안에서 넋을 놓고 풍경을 바라봤다. 섬에 도착해서는 Bobby의 부모님과 조카, 사촌 등에게 팡가시난어로 인사를 건네고, Bobby가 준비한 저녁을 먹었다. 마침 또 다른 호텔 직원인 Clark가 Bobby네 집에 같이 살고 있어서 첫 날은 셋이서 맥주 몇 잔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째 날에는 Salapingao 섬 구경으로 오전을 보냈다. 섬은 동서로 길게 뻗은 형태지만 크기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도보로 대부분의 마을을 구경할 수 있었다.
걸어 다니며 Bobby의 이웃들, 친척들과 인사를 했다. 이 날 가장 큰 체험은 fishpond(생선을 양식하는 저수지)에 가본 것이었다. bangus라는 생선이 많이 잡혀 bangus의 수도(capital)이라고까지 불리는 다구판 시티답게, Salapingao에도 여기저기 물을 가두어놓은 fishpond가 있었고 그 안에는 은빛 방구스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Bobby는 내게 보트를 타고 fishpond를 구경해보라는 제안을 하였고, 나는 직접 노를 저으면서 엄청난 수의 물고기들 머리 위를 떠다녔다. 그러다 기분이 좋았던 방구스 한 마리가 기분 내서 수면 위로 점프를 했는데 고맙게도 보트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손 하나 대지 않은 채 낚시를 성공하기도 했다(그러나 당일 아침을 과하게 먹었는지라 방생했다).

Alex & Bobby

그 다음에는 fishpond에 먹이를 주기 위해 연못 한가운데까지 설치해놓은 대나무 다리를 타고 먹이를 주는 체험을 했는데, 밟고 있던 대나무 한 줄기가 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우지끈 부러지는 바람에 거의 연못에 입수할 뻔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넘어지면서 움켜잡은 가마니마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있던 물고기 먹이가 순식간에 연못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별안간 온 연못이 벌집을 쑤신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거울처럼 잔잔하던 수면이 갑자기 방구스들이 밥을 먹으려고 내미는 수많은 머리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나무에 긁혀 상처가 난 내 다리도 문제라면 문제였으나 순식간에 섬의 평화를 깨뜨린 듯한 큰 죄책감에 나는 울상이 되었다. Bobby는 괜찮다고 했으나 표정을 보니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다. 너무 미안했다(알고 보니 그 fishpond는 Bobby의 형 것이었다).

의도치 않은 큰 경험 이후, All Saints' Day(세상 떠난 이들을 기리는 날)를 기념하기 위해 카톨릭 묘지에 가서 미사를 드렸다. 묘지에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촛불을 사서 켜놓은 광경이 인상적이었다. 미사가 끝난 뒤 또 다른 묘지인 Eternal Gardens으로 가서 Bobby의 친척들을 만나 인사를 드렸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 덕에 엄청난 양의 국수와 떡을 얻어먹었다. 그렇게 둘째 날도 무사히 마친 후 Bobby 집으로 돌아왔고, 밤에는 Bobby 친척들과 함께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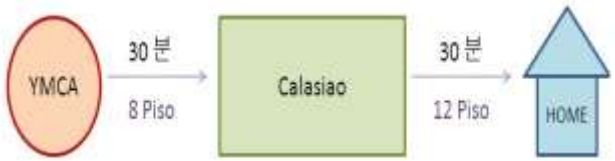
Alex & Bobby

셋째 날은 Bobby가 호텔 근무하는 날이어서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아침에 일어나 배를 타러 갔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빈 항구였다.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오지 않았다. Bobby가 시름에 잠기더니 차를 타고 YMCA로 가자고 제안했다. 배를 타고 가면 2-3Km밖에 되지 않지만, 육로로 가면 15km가 넘는다. 마을 중앙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간 다음 Binmaley라는 타운까지 트라이시클을 타고 간 뒤, Binmaley 도심에서 버스를 타고 YMCA에 도착했다(거의 한 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호텔에 가서 Clark와 Bobby가 체크아웃한 손님의 객실을 청소하는 동안 나는 프론트에서 체크인/체크아웃하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역할을 맡았다(물론 인사를 할 때마다 다음 절차를 밟기 위해 위층의 Bobby를 불러와야 했다). 그렇게 일을 약간이나마 도와주고 점심을 먹은 뒤, 바빠진 Bobby와 Clark가 일을 하는 동안 나는 YMCA에 하나둘씩 도착하는 라온아띠 단원들과 홈스테이 경험을 나누었다.

2박 3일,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을 옆에서 구경하며 감탄사를 뱉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리고 내가 미안할 정도의 호의를 베풀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씨에 다시 한 번 감동을 받은 3일이었다.

Jun & Rolly



10월 31일 목요일　홈스테이 1일 째

YMCA앞 주유소에서 지프니를 30분 타고 Calasiao로 이동 후 한 번 더 지프니를 30분 타고 Doyong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끊어진 다리 앞에서 내렸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 롤리의 집까지 20분을 걸어 들어 간다.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롤리의 집이 보였다.

롤리는 4남매 중 첫 째이고[Rolly(19), Ronaly(17), Ruel(15), Barbi(9)] 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가족분들께 인사 드리고 롤리의 친척집으로 이동하였다. 롤리 친척분은 내일(All Saint' Day)을 위해 라이스케익을 만들고 있었고 그 안에서 YMCA 스콜라인 Ladylyn을 볼 수 있었다. 알고보니 롤리와 친척이었다. 다른 친척들에게 인사드리기 위해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길을 다시 걸었다. 늦은 시간이라 가볍게 인사드리고 롤리와 롤리 동생들과 마을을 걸어다녔다.

끊어진 다리를 건너면 바로 앞에 마을 시장이 있다. 그 곳 2층에서 YMCA의 또 다른 스콜라인 Marilou를 만나게 되었고 Marilou의 옷가게에 들어가 가족들에게 인사드리고 대화를 나누었다.(롤리와 친척은 아니지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11월 1일 금요일(All Saint' Day)　홈스테이 2일 째

아침 5시 40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롤리의 식구들. 롤리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있었고 난 동생의 안내를 받아 길 한 가운데에 있는 야외 공용 화장실로 이동하였다. 바로 옆 펌프에서 물을 기르고 플라스틱 플랜카드 하나로 입구를 가린채 수그려 샤워를 하였다.

Jun & Rolly

오늘은 바로 필리핀의 명절인 All Saint' Day(만성절)이다. 공동묘지를 가기위해 지프니를 타고 다시 Calasiao로 이동하였다. 걸어서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중 양초를 샀다. 안으로 들어가자 롤리의 천척인 Elise Abalos께서 계셔 인사를 드리고 관 앞에 롤리는 양초를 세웠다. 그리고 난 한국에서는 큰 절 두 번 하는게 전통이라하고 보여주었다. 다른 위치에 있는 관으로 찾아가 모두 양초를 키고 세웠다. 그리고 점심에는 모두 관 위에 올라가(?) 밥을 먹었다.

잠시 뒤 이곳에 처음 도착하고 인사 드렸던 Elise를 다시 만나 뵐 수 있었다. 그분은 나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가라고 권해 주셨고 롤리는 손님을 자신의 집에 재우는 것도 필리핀 전통이라며 같이 자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난 보답으로 저녁에 한국 요리를 해보겠다고 하였다.

공동묘지를 나오자 롤리가 다니는 대학교를 볼 수 있었다. 문이 잠겨 들어가진 못 했지만 Dagupan City에 있는 Luzon 대학교보다 훨 커보였다. 시장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중 무척 웅장한 Parish라는 교회를 볼 수 있었고 롤리와 같이 사진을 찍고 놀았다.

Jun & Rolly

롤리의 할머님께 인사드리고 다른 홈스테이 장소(친척집)로 이동하였다. 같은 마을 안이지만 매우 웅장한 마당과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자 감탄은 멈출 수 없었다. 그 큰 저택에서 Elise 한 분만 살고 계셨다. Elise Abalos는 미국에 가족들과 같이 사는 중 2달 정도 휴식을 갖기 위해 살고 계신다 하셨고 알고보니 롤리의 학자금주이셨다.
나는 불고기를 만들었고 롤리의 친척들이 이곳에 모여 같이 식사를 하였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라 하였고 모두 매워서 물을 계속 마시면서도 불고기를 손에 놓지 못 하였다. 한국요리를 현지 친구들과 나눠 먹어 매우 뿌듯하였다.

11월 2일 토요일 홈스테이 3일 째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깼다. 5시 50분 롤리와 동생들은 아침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기 드문 서양식 아침 식사였다. 배불리 밥을 먹은 뒤 Elise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드리고 롤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롤리의 친척동생이 마을 구경을 시켜준다며 자전거를 끌고왔다. 평화로운 자연배경 속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필리핀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길을 지나가며 주렁주렁 열린 파파야, 카카오, 바나나, 구아바, 망고, 파인에플, 자몽 등 여러 식물들을 소개해주었다. 한국에는 없기에 더욱 신기해하였다.
마을을 떠나기 전 롤리의 천척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밝게 웃음을 보이며 또 놀러 오라하셨다. 현지 친구 마을에 들어가 살며 좋은 관계를 맺고 이곳의 문화를 배우는 홈스테이. 다음에는 누구 집에서 할 지 기대된다.

Dainey & Jeramae

6. 홈스테이

〈 가족 구성원 소개 〉

* **Tatay(Father)** – Fisherman, Boat와 노 2척만 있으면 어디든 못 갈 곳이 없으심!
  울보 Kalbo 전담 마크반!
* **Nanay(Mother)** – 젊으셨을 때 한 미모로 남자들이 줄을 섰다는 :)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심.
* **Ate1(Sister1)** – 큰 언니로서, Japet, Kalbo의 Nanay기도 함. 나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 보는 것을 좋아하심.
* **Ate3(Sister3)** – 셋째 언니로서, 패션 리더.
* **Kuya1(Brother1)** – YMCA에서 Pre-school 수영 강사. Amy 남자판.
* **Ate2, Kuya2** – in Manila. 직장이 마닐라로,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음.
* **Jeramae(Amy)** – YMCA의 장학생으로, 언니같은 동생. 기상시간 AM04:00
* **Japet** – Amy의 nephew로, 치킨 닭다리만 공략.
* **Kalbo** – Japet 동생. 울보. Wala! Meron!(없다! 있다!), 일명 '까꿍놀이' 에 환장함.
* **Erika** – Amy 둘째언니의 딸. 치킨, 새우 알러지가 있음. 머리 묶어주는 것을 좋아함.

Nanay, Kalbo, Ate1, Amy, Ate2

Tatay

Japet Erika

Dainey & Jeramae

6. 홈스테이

1. One Neighborhood, One Family

- 여기저기 많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가족관계였다. Amy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Amy의 Cousin, nephew, niece였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였고,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만큼 가까운 이웃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을을 다녀봐도 사방이 막혀 있는 집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바깥과 바로 통해져 있는집 구조들이었다. 같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 홈스테이 2틀날 째 저녁에는 Amy의 사촌 집에서 노래방 기계로 노래와 춤을 추며 놀았는데,저녁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놀아도 손님이 와서 그런가보다하고 대부분 이웃들이 이해해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예로는 이웃 간 소음분쟁으로 칼부림까지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가족 분위기의 마을에서 사는 Amy가 참 부러웠다.
- Amy의 cousin들 중 나와 비슷한 또래가 많아서, 그들과 저녁 늦게까지 floating house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꿈 이야기,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RaonAtti 소개도 하며 우리는 필리핀과 한국의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였다. 필리핀의 청년들과 이러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라는 달라도 청년으로 할 수 있는 고민들에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아주 재미있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Dainey & Jeramae

2. Amy's Dream

- Amy의 소개를 더 하자면, YMCA의 장학생으로 핸드폰 시계가 정상적인 것보다 40분이나 일찍 맞춰져 있는 부지런한 아이이다.우리는 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잠들기 전,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풍족치 않은 가정형편으로 Amy의 언니, 오빠들은 대학교를 가지 못했거나 중간에 그만 둔 상태이다. 그래서 Amy는 자신은 꼭 대학교를 졸업하여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벌어서 언니, 오빠들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꿈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꿈은 물론 지금 이렇게 많은 친척, 가족들과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Sitiotalaibes)에서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언젠가는 city쪽에 있는 천장에 구멍도 없고 수상가옥이 아닌 멋진 주택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은 지금까지도 힘들게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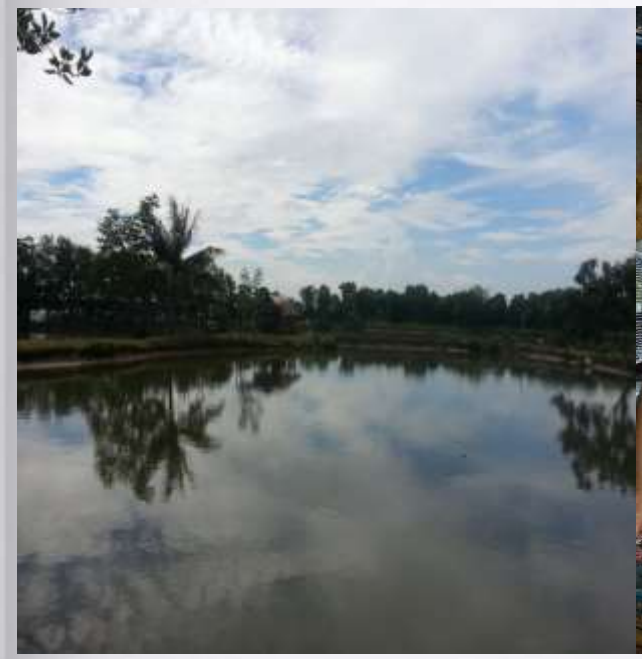
- 사실 이렇게 보면 Amy의 꿈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들을 위한 것 같다. 가족애가 강한 Amy를 보면서 나는 이 아이처럼 내 가족들에게 헌신적이었나. 반성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Amy가 조금 안쓰럽기도 하다. Amy가 언젠가는 자신의 꿈을 모두 이루고, 또 Amy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한 시간도 많이 갖기를 바란다.

Dainey & Jeramae

6. 홈스테이

3. Hospitality

- 물론, 한국에서도 방문객 접대예의가 있지만 내가 이번 Amy네 집에서 홈스테이 하는 동안 방문객으로서 느꼈던 접대는 더욱 특별하고 극진한 것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내가 Tatay(Father)보다 먼저 모든 반찬을 뜨는 것은 기본이고, 아기가 목욕을 안해서 냄새가 난다며 나의 곁에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홈스테이 마지막 날, 아침을 먹고 마을 산책갔다 온 후 보니 Nanay (Mother) 께서 나의 옷을 이미 빨아서 말리고 직접 다림질까지 해 놓으셨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니, 내가 당신네 집에 방문한 것이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다. 이 외에도 Amy의 가족들은 나를 한 번 지나가는 손님이 아닌, 당신들의 친구로 생각해 주시며 너무나 알뜰살뜰 챙겨 주셨다. 나는 지금 이러한 가족들의 환대에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 지 고민 중이다.



MinAh & Boyong 1/5

Day1. Calasiao

두번 째 홈스테이. 지난 홈스테이 때는 Y 호텔 매니져인 Kuya Bobby와 짝이 되었다. 그 때 홍수가 나 Salapingao 섬에 사는 Kuya Bobby의 집에 머물진 못했었지만. 이번에는 YMCA 장학생, 봉사자를 통틀어 가장 웃긴,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10년 지기 친구같은 아이, 다방면에 재능있고 유쾌한 Boyong과 짝이 되었다.

두 번의 홈스테이지만 항상 남자 단원은 남자 짝, 여자 단원은 여자 짝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나는 두번 다 남자 호스트와 짝이 되었다. 별 일도 아니지만 묘하게 반복된 패턴.. 후후. 왜죠 왜죠? Mommy Julie께 여쭈어봤더니, "아마 MinAh 네가 그걸 Manage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일거야." 그래 어찌보면 나도 이 쉬이 감당 안되는 청년 Boyong을 Manage해야 하고 Boyong도 한 캐릭터 하는 MinAh, 나를 Manage해야 하니까, 잘 만난 짝이었다.

아, 또 하나의 대답은 이것이었다. "She is also a girl. That's why you can go with Boyong. HAHAHAHA" 그렇다. Boyong은 여기선 그리 유별날 것도 없는 동성애자이다. 아무튼 이 때의 대답으로 긴가민가했지만 특별히 질문하지 않았던 Boyong의 성 정체감에 대해 힌트를 얻게 되었다. 어머니도 부재중이시고 남자 형제밖에 없다는 Boyong의 집에 뜻 모르게 두근두근한 마음을 안고.. 비 속을 지프니로 달려.. Calasiao로 향했다.

Calasiao는 Dagupan City에서 지프니로 20분가량 떨어진 Municipality이다. San Carlos City와도 닿아 있다. 많은 주민들이 Dagupan, San Carlos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가고 저녁 때 Calasiao로 돌아가는 일종의 Bed Town의 모습도 하고있다.

Calasiao에 도착하자 마자 카페에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만났다. Green Agent WS에서 만나 성게를 밟은 나를 먼 바다부터 뭍까지 업어 도와주었던 고등학생 Allen, 그리고 UPANG 방문 때 우리를 안내해주었던 학교 직원 Jejorma 였다. 여기서 만난 많은 이들이 Calasiao에 살고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다니 이곳 사람이 다 된 기분이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Dumpsite 프로젝트 준비에 큰 도움이 될 두 사람이기도 했다. 반갑게 사진을 찍고 프로젝트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소년 Allen 그리고 UPANG의 Jejorma와:)

MinAh & Boyong 2/5

6. 홈스테이

Day1. Calasiao

지프니가 끊길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프니를 타러 가는데 길가 편의점에서 또 반가운 얼굴을 마주쳤다. 라온아띠의 현지 담당자인 Marvin이었다! 바로 옆 바랑가이에 사는 Marvin의 차를 타고 Boyong의 집으로 향했다. 두 남동생과 아버지가 맞아주셨다. 남동생을 갖는 것을 언제나 바랐는데 남동생이 셋이나 있는 가족과 지내게 되어 저녁 밥 맛이 더욱 좋았다!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수줍은 사촌아이들, 동생들도 곁에 앉아 우리의 대화를 들었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고 매력 넘치는 Boyong을 칭찬하였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로 답하셨다. 동성애에 관대하지 않은 한국의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건만, Boyong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먼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셨다. Boyong이 가족에게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몰래 기뻤다.

Boyong이 TV를 보는 동안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 후 Boyong이 회계학과를 졸업하면 Manila로 가 CPA 시험을 준비할 것이고, 하루 빨리 회계사가 되면 건축 중 멈춘 가족의 집도 완성하고, 낡은 오토바이를 차로 바꿀 것이라는 아버지의 신나는 계획과 소망을 들었다. 곁에있던 Boyong은 몰래 "나 마닐라에 안갈꺼야. 나중에 얘기해."하며 속삭였다.

Boyong과 밤 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다. Boyong이 게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터놓고 이야기를 했다. 가십을 늘어놓다보니, "너 그 애랑 사귀는거지" 라는 나의 궁금증도 해결이 되었다. 답은 사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애가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둘이 사귀는게 아니라니, 신났다!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고민에 대해 바른 답을 들려주었다. 바른 답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Boyong 가족은 다른 많은 필리핀의 대학생 가족처럼 부유한 것 같지는 않았다. 대학을 바라지 하기 위해 가족이 좀 힘들었겠구나 생각했는데, Boyong은 대학 4년동안 자신의 능력으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에게 큰 부채감은 없는 것 같았다. 하루 빨리 회계사가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자신은 아직 CPA 시험을 볼 준비가 안되었으며, 회계사가 되기 전에 'Youth' 분야에 집중하며 다양한 경험을 더 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은 네가 다음주에 Manila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니 가지 않을 거라고 했다. 워낙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가족이기에, 한국의 많은 가족들처럼 이 갈등으로 심각해 질 것 같지는 않았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Boyong의 동네 친구들이 들이닥쳤다. 잠결에 배워둔 Tagalog로 인사와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다시 잠이 들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밤낮없이 자연스레 드나드는 문지방이 얇은 문화가 참 좋았다.

MinAh & Boyong 3/5

Day2. All Saint's Day

홈스테이 첫 날인 10월 31일은 Halloween Day, 둘째 날인 11월 1일은 Catholic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All Saint's Day, 셋째 날인 11월 2일은 모든 죽은 영혼을 기리는 All Soul's Day였다. 이곳 사람들은 이 시기에 모든 친척들이 모여 죽은 가족을 기리고 묘지를 방문한다. Boyong의 어머니께서도 친척들이 사는 지역에 가 계셔 첫날 뵐 수 없던 것이었다.

느즈막히 일어나 주변에 사는 소년 Allen을 만나러 갔다. Allen의 집에 들러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먹었다. All Saint's Day, All Soul's Day때에 먹는 '드르뭇'이라는 음식도 먹었다. 약밥과 비슷한 모양과 맛이었다.

Boyong, Allen과 Calasiao의 오래된 성당 'Peter&Pall's Cathedral'에 갔다. 그리고 Allen을 Calasiao Catholic Cemetery에 데려다 주었다. 공동묘지에 다가갈수록 묘지를 방문하는 수많은 가족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길에서 두 사람의 친구들을 계속 마주쳤다. 나와 Boyong도 그의 여동생의 묘지에 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MinAh & Boyong 4/5

Day2. All Saint's Day

집에 돌아갔을 때 해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해 Boyong 여동생의 묘지에 갈 수 없었다. Boyong의 집을 포함한 두 줄의 집들이 모두 Boyong 아버지의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진 Compound였다. 친척들을 모두 만나 이야기 꽃을 피웠다. '내일 일어나면 꼬맹이들을 잔뜩 보게될거야.'라 했던 Boyong의 말이 이해되었다. 친척들이 모여 사니 외롭지 않고 든든할 것 같았다. 모인 자리에 없는 가족 집도 가 인사드렸다. 집집마다 묘지를 방문하기 위해 만들어 둔 드르뭇을 주셔 모두 먹느라 배가 불렀다. 가족을 만나러 가셨던 Boyong의 어머니가 돌아오셨다. Boyong의 아버지는 미남, 어머니는 미녀시다. 형제들은 왜?.. 하며 모두 빵 터졌다.

Boyong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또 수다 꽃을 피웠다. 소문대로 편안하고 매력적인 가족이었다. 특히 Boyong의 어머니는 집에서 여왕 같았다. 이곳에서 많은 남편들이 부인에게 살갑지 않은 것을 보곤 했는데 Boyong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아주 좋으셨다. 식사 후에는 두 명의 남동생, 그리고 그들과 또래여서 늘 한 집에서 어울리는 사촌 여동생이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했다. 그 동안 부모님과 Boyong은 TV를 보며 아이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을 조금씩 가르쳐 주곤 하셨다. 밥 먹은 후 모든 것을 엄마의 일로 제치고 드러누워있는 흔한 한국의 가족들에 비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과 같이 설거지를 하며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다.

Boyong의 사촌인 나와 동갑 Fatima와 마음이 맞아 잔뜩 수다를 떨었다. 그녀의 딸 Fianne을 만나고 반 당연스레 "남편은 어디 갔어?" 하고 물어보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엄마가 되었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을 인상깊게 기록하는 나는, 다음의 두 용어에 이미 부정적 분위기가 포함된 사회에 살던 나는, 게이도 미혼모도 당당하고 자연스러우며 살기 팍팍하지 않은 이 나라의 정서가 좋았다!

저녁을 먹은 후 Fatima, Boyong과 집 근처에 나가 맥주를 한잔 더 했다. 일도 하고 딸도 돌보는 Fatima에게 오랫만에 자유 시간이 되겠구나 했던 내 생각과 달리, 그녀의 어머니와 Compound에 함께 사는 많은 친척들이 함께 아이들 돌보기 때문에 꽤 자유롭다고 했다.

Chinese-Filipino 청년들을 마주쳐 대화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를, 사업과 돈을 뽐내고 싶어했다. 그들은 중국어를 거의 몰랐고, 부모에게서 받은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의 태도가 매우 불편했던 나와 달리, 다른 필리핀 사람들을 그들에게 아주 우호적이었다. 으시대고픈 한 무리의 청년을 만난 일이었지만, 그 모습을 통해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 경제권을 꽉 쥐고 산다는 화교들의 모습, 그들을 소화하는 필리핀 사회 환경의 한 켠을 들춰본 것 같았다.

MinAh & Boyong 5/5

6. 홈스테이

Day3. 마지막 날

밤 늦게 부모님과 Dumpsite에서 하는 활동들을 이야기 하다가 Dumpsite에서 Boyong과 내가 촬영한 영상들을 작은 프로젝터로 비추어 보았다. 아버지께서 아이들을 불러 온 가족이 모인 작은 상영회가 되었다. 모두 진지하게 보며 Dumpsite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것,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 힌트도 얻을 수 있었다.

다음 날 부모님이 출근하시고 한참 후에야 늦잠에서 일어났다. 아침일찍 어머니와 시장을 가고 오후에는 일하시는 미용실에 함께 가 머리를 잘라 주시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해가 중천에 떠 일어나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다. 며칠 후 Boyong의 졸업식 때 다시 만나 인사 잘 드리기로 했다.

Boyong과 돼지고기 시니강을 끓여 먹고 또 동생들과 누워 TV를 보았다. 홈스테이의 마지막 날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Boyong 집을 떠나는 것이 싫어 늦장을 부렸다. 그만큼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낸 3일이었다.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필리핀 문화를 알기에 나의 방문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나 내가 더욱 걱정이었는데 3일의 홈스테이는 '편안함'이었다. 잠깐동안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설거지를 하겠다는 나를 말리시며"설거지 대신 옆에 와서 아까 그 얘기 좀 더 해볼래."하셨을 때나, 내가 드린 작은 선물을 침대 밑에 소중히 두신 것을 보았을 때, 내 방문을 좋아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엄청난 개성의 소유자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Boyong의 성격이 이 가족에서 온거군, 생각했다. Boarding House에서 합숙을 한지 2개월이 되어가는 나는 오랫만에 맛보는 가족의 분위기에 한국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많은 나라에 살아보지 않았기에, 한국은~ 하며 쉬이 비교를 하게된다. 한국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가족들이 최소단위의 생계 공통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서로 여러 형태의 부담을 지우고 나누며 산다.

이 가족,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은 아는 많은 필리핀 가족들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또 아직도 많은 가족이 모여 살며 서로에게 은은한 든든함이 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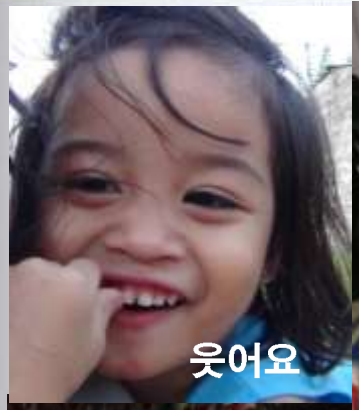
이것이 가진 것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불안함에 떨지 않고 사는 필리핀 사람들 삶의 모습의 한 바탕이 아닐까. 친척들이 모여 사는 Compound에서 나고 자랄 Fianne과 아이들이 부럽다.

-끝.

마을을 떠나며 차를 기다리는 나를 배웅하던 조카 아이들

아띠하우스 가족 사진

아띠하우스 가족 사진


웃어요

침대는 과학이아니다

같은듯 다른 커플룩

2초뒤엔…

누가누가 더 못생겼나

허리한번 펴볼까

개 피곤

코크러치의 위력

문 좀 열어주세요

눈이 부시다

윱스

활동 후 먹는 부코
쥬스의 꿀맛

우리 찍어주세용

골목대장

태풍의 흔적

내 꿈은 소중하니까

우리 가족

거울아 거울아

매트릭스

자가 맥진단

웃어라

브이브이! 뽀기뽀기!

맛있는 부코쥬스

또 다른 부코쥬스

김~~치!

오징어 두마리

미녀 삼총사

땅 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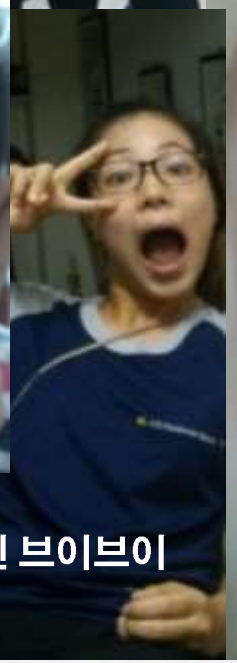
Happy Day~!!

뽀뽀 쪽!

언니 어디가?

지켜보고 있다.

디스거스팅


야무진 브이브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도전 슈퍼모델

조금이라도 더 잘래

다음달에 만나요! :D